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티B의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EIB의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 1

국제금융시장 3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7



EIB의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현진 (maxnlio@kdb.co.kr)

- ◆ EIB는 운송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드론 등 UAM 분야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22.1월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를 발표
 - 동 가이드는 '22.4Q에 예정된 EU의 '드론 전략 2.0'에 앞서 금융지원 가이드 역할 수행
- ◆ 우리나라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구축 등 정부정책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 등 금융지원이 병행될 필요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은 역대 드론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22.1월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를 발표

* EIB('22.1월), "The EIB guide to finance for drone projects"

- EIB는 운송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에 주목
 - * EIB는 도심, 교외에서 제공되는 지능형 공중 운송 서비스 또는 기능으로 UAM을 정의
 - UAM은 온실가스 감축 및 스마트 운송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린·디지털 전환 등 EU의 중장기 정책과 부합
 - 특히 드론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Supply Chain의 주요 운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건축,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
 - * EU 집행위원회는 UAM이 향후 20년간 15만에서 20만개의 역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이에 EIB는 '드론 프로젝트 금융지원 가이드'를 통해 드론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점검사항과 금융지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UAM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최근 글로벌 UAM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드론 프로젝트 평가기준 및 금융지원 마련 필요성이 대두
 - * Morgan Stanley('19)는 글로벌 UAM 시장이 '20년 70억달러에서 '40년 1.5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동 가이드는 '22년 4분기 발표 예정인 EU의 '드론 전략 2.0*(A Drone Strategy 2.0 for Europe)'에 앞서 UAM 분야의 금융지원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
 - * 유럽 그린딜('19.12월)의 세부 정책인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20.12월)을 통해 수립될 EU의 UAM 전략으로, 드론의 기술적 발전 방향 및 상업화 과정에서의 규제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

□ 동 가이드는 드론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의 ①준비 및 ②실행 단계에서 업무 수행자가 점검해야할 사항 및 활용가능한 금융지원 수단을 제시

- ①준비 단계는 프로젝트의 비전, 전략, 타임라인 등을 확인해야 하며, ②실행 단계는 프로젝트 실행 이후의 모니터링, 사후관리 방식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
 - EIB는 동 가이드를 통해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서(Business case) 작성 가이드라인도 제공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

구분	내용
① 준비 (Prepa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비전, 기회요인, 시장상황, 정부정책 등 내용 파악 ■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여부 등 ■ 기술, 인프라 등 솔루션 구축상황 점검을 통한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파악 등
② 실행 (Re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여부 확인, 기술·서비스 등의 실증을 통한 안전성 점검 등 ■ 프로젝트 관련 기술, 인프라 등의 작동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등 ■ 성과 측정 시스템을 통한 향후 프로젝트의 개선 가능성 등

자료 : EIB('22.1월), "The EIB guide to finance for drone projects"

- EIB는 드론 프로젝트 진행중 활용할 수 있는 그룹*내 금융지원 방안도 명시
 - *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자회사인 EIF(European Investment Fund)로 구성
 - EIB는 InvestEU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기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드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EIAH**를 통해 기술, 정책 등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
 - * 기존 역내에서 운영되던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한 EU의 신규 금융 프로그램('21년~)으로, 1) 지속 가능 인프라, 2) 리서치·혁신·디지털화, 3) 중소기업, 4) 사회적 투자 및 기술 분야를 지원
 - ** European Investment Advisory Hub : EIB 그룹, EU 집행위원회, 역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가 집단으로, 향후 InvestEU Advisory Hub에 편입될 예정
 - *** 공공분야의 프로젝트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민간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조건에 따라 비용책정
 - EIB는 EIF 및 역내 중개금융기관을 활용한 간접 방식의 금융지원*도 병행
 - *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EIF를, 중견기업 이후는 중개금융기관(은행)을 주로 활용

□ 우리나라의 경우도 드론 등 UAM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 등 금융지원 필요성이 요구됨

- 정부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20.5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21.12월) 등을 통해 UAM 상용화를 위한 비행 실증 방안 및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추진
 - 한국형 UAM의 경우 향후 발전정도에 따라 '40년까지 약 1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 이에 드론 등 UAM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정책금융 등을 활용하는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될 필요

국제금융시장 2월 동향 및 3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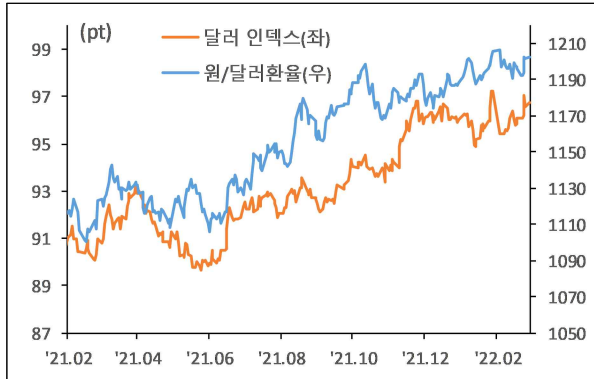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천 경 원 (cheonkw@kdb.co.kr)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 ◆ **(환율)** 2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1,200원대로 상승, 3월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금리)** 2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따른 긴축 경계감 우세로 전월말 대비 상승, 3월에는 FOMC결과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일 전망
- ◆ **(주가)** 2월 주요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분쟁위험 확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3월에는 통화정책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환율) 2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승, 3월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따라 변동성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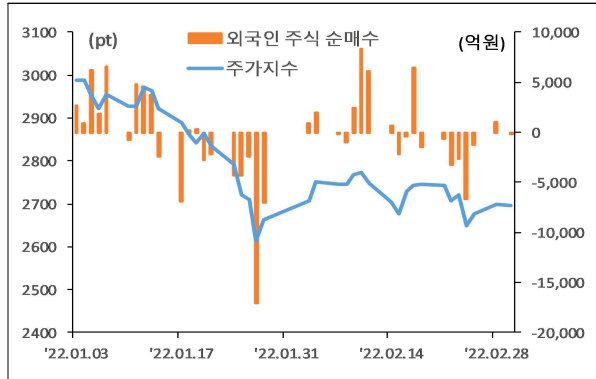
- (글로벌 동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 달러인덱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인 2.24일 장중 97.739('20.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나토군과 러시아와의 전면전은 피할 것이라는 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상승세를 되돌리며 96~97 수준에서 등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달러/루블화 환율은 미국 등 서방국가의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SWIFT망 배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등으로 인하여 급등*
 - * USD/RUB 환율은 2.1일 76.82으로 출발하였으나 3.1일 장중 116.36까지 상승
 - 시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상태의 지속,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인플레이션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
- (국내 동향) 원/달러 환율은 2.28일 러시아의 핵전력 언급에 따라 장중 '20.6월 이후 최고치인 1208.5원까지 상승 후 하락하여 1,202.3원으로 마감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전 1,190~1,200원 사이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1,200원 이상 수준에서 등락
 - 2월 초 외국인의 주식투자 순매수세로 2월 중 누적 외국인 순매수는 유지되었으나 2월 말로 갈수록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졌으며 주가는 소폭 하락
 - * 2월 누적 외국인 주식 순매수(코스피): 8,063억원, 주가(코스피) 추이 : 2,707(2.3) → 2,699(2.28)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주가 지수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KOSPI)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전망)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주의
 - 3월 FOMC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따라 금리인상이 25bp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장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쟁이 격화되기 이전 일부 연준인사는 50bp 인상이 필요함을 밝힌 바 있어 미 연준의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

환율 추이

	'20년말	'21년말	'22.1월말	'22.2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086.3	1,188.8	1,205.5	1202.3	△0.26%
달러 인덱스	89.927	96.141	96.625	96.767	+0.15%
달러/유로	1.2217	1.131	1.124	1.121	△0.27%
엔/달러	103.26	114.82	115.08	114.96	△0.10%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2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따른 긴축 경계감 우세로 전월말 대비 상승, 3월에는 FOMC 결과와 우크라이나 분쟁 추이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일 전망

○ (동향) 2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통화정책 긴축 경계감이 재차 강화되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월말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금리 상승폭을 제한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4일 1.9% 돌파 후 1.9~2.0% 수준 유지하다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승폭 되돌리며 전월말대비 소폭 상승 마감
- 오미크론 변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1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와 소비자물가 최고치 경신** 등으로 통화 긴축 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금리 상단을 제한

* 1월 비농업 취업자 수 : 전월대비 46만7천명 증가 (예상치 12만5천명을 크게 상회)

**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 전년동월비 7.5% 증가 ('82년 이후 최고 수준)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월말 플러스 전환 이후 상승*하며 2.15일 0.308%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반락하며 월말 0.135%로 마감

* ECB는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전과 달리 금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아 매파적 전환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시장은 평가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미 국채시장 움직임에 동조하였으며, 0.2% 수준 보합

○ (전망) 3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3월 FOMC의 통화정책 언급에 주목하며 연동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분쟁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자산 선호는 유지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인해 3.15~16일 FOMC에서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전망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실행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급격한 통화긴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20년말	'21년말	'22.1월말	'22.2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0.9132	1.5101	1.7767	1.8250	+4.83bp
독일채 10y	-0.5690	-0.1770	0.0110	0.1350	+12.40bp
일본채 10y	0.0210	0.0710	0.1780	0.1920	+1.4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2월 주요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분쟁위험 확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3월에는 통화정책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동향) 2월 주요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고조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하락
 - 양호한 기업실적과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매수세가 증가하기도 했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치 경신 등에 따른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과 우크라이나 분쟁 위험 고조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우세
 - 미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분쟁지역 내 전투병력 미지원 발표에 반등한 반면, 러시아에 대한 SWIFT 배제 발표에는 글로벌 경제 악화 우려로 하락하는 등 이벤트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
 - 유로Stoxx50 지수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시장 불안 심화로 '21.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 Nikkei225 지수도 미국, 유럽 증시 움직임과 동조하며 내림세를 지속
- (전망) 3월 주요국 증시는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와 우크라이나 분쟁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3월 FOMC를 앞두고 긴축 강도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겠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 구체화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요인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주요은행의 SWIFT 퇴출 등 강력한 대러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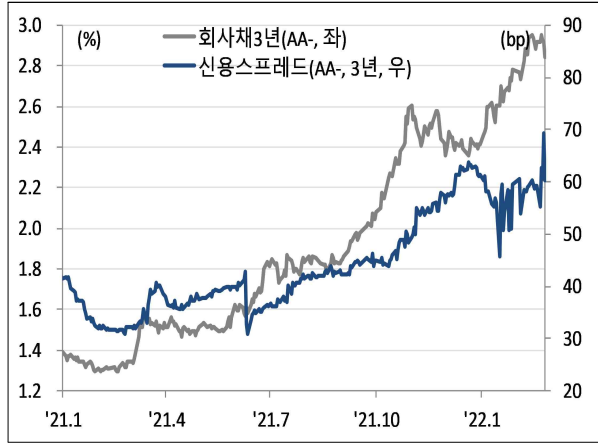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22.2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30,606.48	36,338.30	35,131.86	33,892.6	△3.53%
유로 Stoxx 50	3,552.64	4,298.41	4,174.60	3,924.23	△6.00%
Nikkei 225	27,444.17	28,791.71	27,001.98	26,526.82	△1.76%

자료 : Bloomberg

(담당자 : 환율 - 천경원, 금리·주가 - 장명화)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2.244% (7.8bp ↓), 신용스프레드 60.2bp (0.9bp ↑)



환율 원/달러 1,201.6원 (5.7원 ↑), 엔/달러 115.53엔 (0.45엔 ↑)



주가 코스피 2,676.76pt (2.47% ↓), 코스닥지수 872.98pt (0.9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66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